

도시침수 방지 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신속 추진

- 환경부 장관, 홍수대응 차원으로 도림천 방문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범운영 추진상황 및 지자체 협력 체계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29일 오후 신대방역(서울 관악구 소재) 인근을 찾아 도시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도림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8월 8일 관악구에는 시간당 140mm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도림천이 범람하고 인근 도로와 반지하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도림천의 경우 비가 내릴 때 수위가 급격히 변해 돌발 강우 시 관련 지자체에서 침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고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5일부터 홍수예보 전문기관인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6시간 예상강우를 활용해 도림천 수위, 하천범람 또는 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범위 등을 예측해 관악구청에 위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지하주택 주민대피, 하천 산책로 출입 통제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도림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단위 인공지능(AI) 예보 플랫폼을 연말까지 조기 구축해 내년 홍수기부터 전국 223개 지점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통해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 도림천유역 AI홍수예보 현장 방문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책임자	과 장	안상혁	(044-201-7541)
		담당자	연구사	김정엽	(044-201-7542)
		담당자	주무관	김진식	(044-201-7543)

□ 방문 개요

- (목적)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도림천유역 홍수대비 태세 점검
 - (일시/장소) '23.6.29.(목) 14:00 ~ 14:40 / 서울 신대방역 일원
 - (참석자)
 - 환경부 :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수자원정책관 등
 - 지자체 :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치수과장 등
- ※ 참석자는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AI홍수예보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점검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브리핑 - 도림천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등 보고(10') - 관악구 도시침수 수방대책(5') 	한강홍수통제소장 관악구청
14:15~14:2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신대방역 → 관측국사) 	
14:20~14:2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유량 관측시설 확인 	한강홍수통제소장
14:25~14:3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관측국사 → 도로침수계) 	
14:30~14:4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침수계 시설 확인 	